

Economist
Global Strategist
유신익
 02) 3787-2186
 sinik@hmcib.com

Jr. Economist
최진호
 02) 3787-2514
 jh.choi@hmcib.com

〈2014년 글로벌 경제 전망〉 몇 가지 미시적 요인만 주의하면 괜찮을 한 해 (요약)

최근 글로벌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유럽 및 중국 등이 회복 주체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타 신흥국(한국 포함)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역시 점증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기대감 속에서도 미국의 tapering,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문제, 유럽의 신용 회복 가능 수준 등에 따라 2014년 글로벌 경제의 회복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 마이크로(micro)적인 요인과 경제 매크로(macro)적인 요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가장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그림(featur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미시적 측면 - 미국은 주택시장의 회복 둔화 가능성, 미국 소비자 부채에 대한 부담 등의 요인이 2014년 미국 금융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은행의 연체관련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은행의 영업활동 역시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4년 미국의 자본/주택/금융 부문은 현 수준과 같은 양호한 국면은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회복과 성장의 속도는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적 측면 - 2014년 미국은 재정적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2014년 예산 지출안에 대한 합의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국가적 재정 건전성은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 주택시장의 추가 부실화 가능성과 주요 산업의 재고 증대 등의 부정적 현상은 점차 제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14년 미국 경제는 2013년 하반기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2.0%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미시적 측면 - 유럽의 역내 target2 불균형 현상 완화 및 개인 저축금액의 증가 등으로, 2014년 유럽의 신용기반과 은행의 영업활동 환경은 2013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까지 유럽 민간은행의 대출여력이 크지는 않고 대출활동 역시 소극적임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자본시장 안정이 내수신용 증대와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정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2014년 유럽의 금융 시스템은 크게 안정화될 것이나, 이에 따른 경제회복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적 측면 - 2014년 EU 경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대 및 수출대상국의 확대(기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점진적인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지속되는 EU 고실업율과 이에 따른 가계 경제활동의 제약 등이 EU 전체 경제의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며, PIGS국가들을 중심으로 재확대되는 재정악화 현상이 2014년 EU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2014년 하반기 ECB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과 PIGS 채권 매입의 의한 재정 보전 등으로, 민간 경기가 점차 개선되며 2014년 전체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 국〉

미시적 측면 - 중국은 2014년 중국 주요 4개 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게 관리되면서, 전체 중국 금융시장 역시 점차 안정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2013년에 이은 중소형 상업은행들의 자본 부실화 가능성과 유동성 위험 등의 현상이 비주기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잔존한다. 한편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화 속에서도, 상업은행의 신규대출 및 자본공급 정도는 제한되고 정책적인 압박(pressure)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 중국의 주택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이어가는 과도기적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적 측면 - 2014년 중국 지방 정부의 채무부담 증대 및 재정 부실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시스템이 급격히 취약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지방정부, 지방공사, 은행으로 연계된 투자사업 구조에서 일부 은행에서 채무 이슈가 논란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동 사항의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4년 중국 경제는 '구조적 안정성이 부각되나, 추가 성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 연평균 성장률을 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

한국 경제의 대외 부문에서, 2014년에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흑자폭은 2013년 대비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원화의 강세현상, 2014년 신흥국의 통화 절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4년 한국 경제의 대내 부문에서는 극심한 투자 위축 현상이 완화되며, 특히 설비투자가 큰 폭 증가(2014년: 7.8%)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투자 증대는 대외 경기(경상수지 흑자)의 안정성(비록 불황형 흑자 측면이라 하더라도)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내수 경기를 견인(투자증대 → 고용증대 → 소비 증대 → 생산 증대)하는 촉발제(trigger)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2014년 한국 경제는 성장에 대한 대외부문 기여도는 소폭 축소되는 가운데, 설비투자(특히 시설 확장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증대되며 내수 경기를 견인하는 양상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 4.0%)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